

2020년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한 새사람을 위해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
곧 으뜸이신 분이시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분이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갖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전 존재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우리의 문화 대신 그분을 살 때, 한 새사람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새사람의 생활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고 실지로 한 새사람이 되기 위해,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새사람의 생활을 해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
오늘날 한 새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새사람을 위해 문화를 대치하심

메시지 1

우리의 문화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성경: 골 1:12-13, 15-18, 27, 2:8, 14-15, 3:4, 10-11

I. 골로새서가 쓰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문화가 만연했고 성도들이 문화에 의해 그리스도로부터
빛나갔기 때문이었다 — 골 2:8, 16-17, 3:10-11.

- A. 골로새에서는 문화가 교회에 범람했고 그리스도를 대치했으며 성도들을 사로잡아 갔다 — 골 2:8.
- B. 하나님의 원수는 문화를 사용해 그리스도를 대치한다. 그는 문화의 좋은 방면들을 사용해 그리스도를 대치하려고 할 것이다 — 비교 빌 3:4-8.
- C. 골로새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문화로 대치된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대체물이 우리의 문화라는 것을 보여 준다.
- D. 골로새서에서 ‘어둠의 권세’는 특별히 문화의 좋은 방면들과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좋은 방면들을 가리킨다 — 골 1:12-13.
 - 1. 골로새의 성도들은 문화의 최고의 방면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어둠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 — 골 2:8.
 - 2. 최고의 문화적 산물들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사탄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인 어둠의 권세의 방면들이다 — 골 1:13.
 - 3. 그리스도의 대체물인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통제하는 어둠의 권세가 된다 — 골 1:13.

II. 인간 문화는 사람의 타락 이후에 생겨났다 — 창 4:16-22.

- A.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후에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한 성을 건설했다 — 창 4:16-17.
 - 1. 이 성안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
 - 2.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 곧 사람의 보호와 생활 수단과 공급과 오락이 되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 3.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문화를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 문화의 기본 요소들에는 생존을 위한 성(城)과 생계를 위한 가축 사육과 오락을 위한 음악과 방어를 위한 무기가 포함된다 — 창 4:20-22.
- B.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문화의 내재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안에서 일으킨 부추김과 선동이였다 — 창 4:7, 16-17, 마 12:26.
 - 1. 하나님이 없고 사탄과 결합된 그러한 문화는 하나의 모형이 되어, 역대에 걸쳐 모든 인간 문화들을 대표하며, 또한 이러한 문화들이 하나님이 없고 사탄을 따라왔으며 사탄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 눅 4:6과 각주 1.

2.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는 창세기 4장에서 하나의 씨로서 시작되었으며,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발전되었고, 결국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바빌론으로 완결될 것이다.
3.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최고도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한다.

III. 문화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 엡 3:10-11, 5:32.

- A. 매우 간교한 무언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훼방하고 있다. 간교하게 반대하는 이 요소는 바로 문화이다 — 골 3:10-11, 엡 2:14-15, 골 2:14-15.
- B. 문화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크게 좌절시킨다. 무의식적으로 또한 잠재의식적으로 우리는 문화에 의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저해받고 있다 — 빌 3:7-8.
- C.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간교하고 감추어진 문화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 골 2:19, 엡 4:13, 15-16.

IV. 인간 문화는 하나님의 왕국을 적대한다 — 마 10:16-25, 34-39, 12:29, 46-50.

- A. 죄악된 것들은 인간 문화만큼 하나님의 왕국을 반대하지 않는다.
- B. 인간 문화는 사탄의 왕국의 기본 요소와 큰 부분이 되었다 — 마 12:26.
- C. 문화는 사탄의 요새가 되었다. 사탄은 간교한 방식으로 문화를 계속 좌지우지하면서 그것을 이용해 하나님의 왕국을 반대한다 — 행 26:18, 골 1:12-13.

V.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문화와 반대되시며,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셔야 한다 — 골 1:18, 3:4, 10-11.

- A. 골로새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광대한 계시를 보여 주는 목적은 문화를 처리하는 것이다 — 골 2:8, 3:10-11.
- B. 이 책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 준다 — 골 1:27.

VI. 문화를 대치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 곧 으뜸이신 분이시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분이시다 — 골 1:15-18, 2:16-17, 3:4, 10-11.

- A.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이시다 — 골 1:15, 18.
- B. 골로새서가 쓰인 목적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문화를 처리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시는 분을 계시하는 것이다 — 골 3:4, 10-11.
- C.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우리를 죄, 심판, 불 못, 세상, 자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 히 7:25.
- D.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엡 3:17상, 골 1:27, 3:11.

우리의 문화 대신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삼

성경: 엡 3:11, 16-17상, 빌 1:20-21상, 골 1:15, 18, 27, 3:4, 10-11

- I.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새사람인 교회를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 — 빌 1:21상, 엡 2:15-16.
- A.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침투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입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 엡 3:17상, 갈 2:20, 3:27, 4:19.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생활이다 — 빌 1:20-21상.
 - C.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사는 것이다 — 골 1:27, 롬 8:10.
 -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과 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 그분과 우리는 반드시 실질적인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 고전 6:17.
 - 2.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대치되시는지에 관하여 빛을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을 산 것, 곧 그리스도에 의해 살기보다 문화에 의해 더 많이 산 것에 대해 주님께 자백할 것이다 — 요일 1:7.
 - D.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조성하고 있는 그것이다 — 골 3:4, 10-11, 엡 3:17상.
- II.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 대(對) 문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의 완전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 갈 1:15-16, 2:20, 4:19.
- A. 우주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곧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 안으로 일해 넣으심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 엡 3:17상, 고전 6:17.
 - B.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철저히 일해 넣으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내적 요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엡 3:11, 16-19.
 - C.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셔야 한다. 곧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야 한다 — 삼하 7:12-14상, 롬 1:3-4, 엡 3:17상, 요 14:23, 골 3:10-11.
 - 1.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로 재조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엡 3:17상.
 -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을 확장하시어 우리의 혼 전체를 차지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신다 — 마 16:18, 엡 3:17상.
- III. 그리스도께서 문화와 대립되신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버리고 어떤 문화도 전혀 없이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골 3:10-11.
- A.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화에 따라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규제하며 개선하기 때문이다.
 - B.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가 필요하다.
 - C.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문화가 그리스도를 제한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좌절시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우리는 문화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 골 2:6-7.
 - D.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문화와 율법이 필요하다 — 갈 3:23-28.

1.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반드시 문화에 따라 율법 아래서 훈련받아야 한다 — 갈 3:23-24.
2.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그들이 문화로부터 그리스도께 돌이키도록 점진적으로 도울 수 있다 — 요 1:12-13, 6:57.

IV.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화가 그리스도의 대체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골 2:6, 3:10-11.

- A. 모든 종류의 문화는 그리스도와 대립되며, 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문화와 대립되신다 — 골 3:11.
 1. 어떤 문화든지 그 종류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대립된다.
 2.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인간의 모든 산물과 발전은 문화의 일부이다.
- B.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은 문화이다. 우리 안에 있는 문화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 — 빌 3:3-9.
- C.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여 그들의 문화를 대치하는 것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주님에게서 받았다 — 엡 3:17상, 골 3:4.
- D.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의 문화를 제쳐 놓을 자유를 갖고 있다. 우리 안의 모든 공간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드려져야 한다.
- E. 우리의 내적인 역량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대치될 것이다 — 골 1:27, 3:11.

V.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것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상 없이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 행 26:19, 엡 1:17-23.

- A.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작고 제한된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이시며,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다 — 골 1:15, 18, 2:2, 9-10.
 1.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전 존재 구석구석에 그분 자신을 확장하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 — 골 1:27.
 2.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되셔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문화에 입지를 조금도 주지 않고 그분을 살아야 한다 — 빌 1:21상, 골 3:11.
- B.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자마자,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을 제쳐 놓기 시작해야 하며,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이 그리스도를 대치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행 9:4-5, 26:19, 빌 3:7-10.
 1.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문화에 입지를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
 2. 그 대신, 우리 안의 모든 공간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 — 골 1:27.
- C. 우리가 내주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을 것이다 — 골 3:10-11.
 1. 이전에는 문화가 그리스도를 대치했지만, 일단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는 문화를 대치하실 것이다 — 골 3:11.
 2.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실 것이다 — 빌 1:21상.
- D.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화로부터 구출되고, 우리가 의지해 사는 그리스도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신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보여 주는 계시이다 — 골 1:15, 18, 27, 2:2, 9-10, 3:4, 10-11.

메시지 3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 — 문화를 대치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

성경: 골 1:15-18, 27, 2:9-10, 16-18, 3:4, 10-11

- I. 우리가 골로새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책에서 바울이 인간 문화라는 감추어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것이다.
- A.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아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서신서가 문화를 다루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해 준다.
 - B.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계속 존재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체계적인 방법이다 — 창 4:16-22.
 - 1. 문화는 모든 사람의 무의식적인 생활이다 — 엡 2:2-3, 4:17.
 - 2.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의 영향 아래 있다.
 - C. 문화가 골로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문화는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다 — 골 2:8-10, 16-18.
 - 1.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문화의 영향 아래 있다. 이러한 문화의 요소들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다 — 갈 4:3, 9, 골 2:8, 20.
 - 2. 교회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함께 가져왔으며, 이 문화는 그리스도와 교회생활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손상한다.
 - 3. 교회생활 안에서 유일한 요소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이 문화로 대치되어 왔다 — 골 2:8, 3:11.
 - a. 잠재의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의 특정한 문화적인 배경에 높은 가치를 둔다.
 - b.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문화에 의해 더 많이 대치되신다 — 골 3:11.
- II. 골로새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심을 계시한다 — 골 1:15-18, 27.
- A.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하다.
 - B. 이러한 이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교회생활에 끼치는 문화의 영향을 종결할 것이며, 우리는 문화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그리스도로 점유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이 될 것이다 — 골 3:11하.
- III.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한 새사람의 유일한 조성 성분이다 — 골 3:4, 10-11.
- A. 새사람인 교회의 조성 성분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교회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이다 — 골 1:15-18, 2:9-10.
 - B. 우리의 생명과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신다 — 골 3:11.
 - C. 그리스도를 우리의 몫으로 누린 결과는 우리가 그분을 한 새사람의 내용과 조성 성분으로 체험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 되는 것이다 — 골 1:12, 3:11.
 - D. 골로새서 3장 11절에 따르면, 새사람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점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 한 새사람 안에는 문화적인 차이점들이 없다. 왜냐하면 새사람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골 3:11.
 2. 새사람인 교회 안에는 지역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국가적인 차이점들을 위한 여지가 없으며,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거나 문화나 사회적인 신분을 위한 입지도 없다.
- E.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유일한 조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새사람의 일부인 믿는 이들 가운데에는 차이가 없어야 하며 교회들 가운데에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 — 고전 4:17, 계 1:12, 20, 22:16.

IV.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 골 3:11.

- A. 새사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시며 또한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 — 골 1:27, 3:11.
- B. 한 면에서 새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다.
- C.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지체들이 계속 존재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지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골 1:27.
- D.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조성으로 취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시라는 것을 깊은 속에서 느끼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된다 — 골 3:4.
- E. 새사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골 1:15-18, 2:16-17, 3:4, 10-11.
 1.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침투되고, 그리스도로 적셔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유기적으로 일해 넣어지시도록 해야 한다 — 갈 4:19, 엡 3:17상.
 2.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될 것이고, 그럴 때 실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다. 그분은 새사람의 모든 부분이실 것이다 — 골 3:11하.
- F. 새사람은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우리를 대치하셔서, 마침내 모든 타고난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조성되도록 하신다 — 갈 4:19, 엡 3:17상, 골 1:27.
- G.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체험을 가질 때, 한 새사람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새사람의 생활을 실현할 것이다 — 골 3:10-17, 몬 10-16.
- H.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되신다면, 그때는 오직 그분만이 새사람 안에 계실 것이고, 국적이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이럴 때 참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실 것이다 — 골 3:11, 빌 1:21상.

V. 새 예루살렘은 한 새사람의 최종적인 완결일 것이다 — 엡 2:15-16, 4:24, 골 3:10-11, 계 21:2, 9-10.

- A.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때 우주적인 한 새사람의 생활을 누릴 것이다.
- B.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며, 실재와 실행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한 새사람의 일부로 만드시는 것을 허락해 드림으로써, 이러한 누림을 미리 맛볼 수 있다 — 골 1:27, 2:10, 3:4, 10-11.

메시지 4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고 실지로 한 새사람이 되기 위해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짐

성경: 고후 4:16, 엡 2:15, 4:22-24, 골 3:10-11

I. 에베소서 4장 22절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라고 말한다.

A. ‘옛사람’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가리킨다. 옛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존재 자체이다 — 롬 6:6.

1. 옛사람과 옛사람에 포함된 모든 것은 교회생활을 손상한다. 어디든지 옛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것과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에 따라 산다면, 교회생활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심지어 끝나 버릴 것이다.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 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교회생활 곧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교회생활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교회생활에서는 분열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B. ‘생활 방식’이라는 말에는 매우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세계의 각 나라 안에 그리고 각 민족 가운데에는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다.

1.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와 우리의 문화를 벗어 버려야 한다. 우리의 문화가 강할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 더 비판적이 될 것이다 — 비교 엡 4:31-32, 골 3:12-14.
2. 참으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문화와 관련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 버려야 한다. 새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노예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이전의 생활 방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3.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내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것이다 — 엡 4:17-19.
4. 서로 다른 문화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체현된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 교회생활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다 — 골 3:10-11.
5. 소위 교회들이 국적에 따라 형성된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끊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난날의 사회생활을 선호하게 되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반드시 본성과 방식과 실행에서 절대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II.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새사람은 한 단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4장 24절에서 말하는 새사람도 틀림없이 단체적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된 이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A.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다. 또한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 — 엡 4:22-24, 롬 6:6, 4.

- B.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은 성취된 사실들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 이 사실들을 체험하고 실재화해야 한다 — 엡 4:23.
1.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은 자아에 십자가를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다 — 엡 4:22, 마 16:24.
 2.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이다 (빌 1:19-21상).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엡 2:15, 4:24).
- C.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은 반드시 우리 생각의 영이 되어야 한다(엡 4:23).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영에 의한 생활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을 따른 일이 될 것이다. 이 영에 의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새사람을 입는다.
- D.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해야 하며, 이럴 때 새사람의 매일의 행함이 생각의 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생활의 비결이다 — 엡 4:23.
- E. 새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그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처와 새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새사람을 입는 길은 바로 우리의 영을 생각의 영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엡 2:22, 4:23.
1. 영이 생각의 영이 되는 것은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며 다스리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비교 고전 2:15-16, 고후 2:13, 10:4-5).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시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우리의 영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
 2. 우리가 얼마만큼 새사람을 입느냐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를 얼마만큼 지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전 2:15).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시할 때 문화나 의견이나 규례를 위한 입지가 없게 된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통치받고 지시받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을 위한 여지가 없게 된다.
 3.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고 적시고 소유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더욱더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한다 — 빌 2:5, 고전 2:16, 롬 12:2.
- F.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완성된 산출물인 새사람을 함께 가지고 오셨다. 이제 새사람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시고 각 부분 안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새사람을 입는 것이며 또한 새로워지는 것이다.
- G. 우리는 헛된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생각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단체적인 한 새사람을 매일 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영의 하나로 가득한 교회생활을 갖는 비결이다 — 엡 4:3-4, 17-18, 23-24.
- H.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은 연합된 영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인간 생활의 일들에 대한 옛 관념들이 모두 제거되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빛 비춤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 시 119:105, 130, 담후 3:15-17, 신 17:18-20.
- I. 실지로 한 새사람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꺼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

III.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말의 중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과 관련된다. 새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다 — 엡 2:15, 골 3:10-11.

- A. 새사람은 옛 창조물에 속한 우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이라는 구절이 가리키듯이 주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 — 골 3:10.
- B. 하나님에 따라 새사람이 창조된 것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체험에서 새사람은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다. 새사람을 입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인 그분의 형상을 더욱더 지니게 된다 — 골 3:10.
- C.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해져서 우리의 옛 요소를 대치하고 배출하게 하는 것이다 — 계 21:5상, 고후 5:17, 롬 12:2, 고후 4:16.
 - 1. 우리의 천연적이고 민족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교육받아 구축된 것이다. 이것은 새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
 - 2. 한 새사람이 완전히 나타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민족과 문화에 따라 구축된 우리의 생각이 철저히 새로워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
- D. 새로움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새로워지는 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 1. 하나님은 영원히 새로우시며, 항상 새로운 그분의 본질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주입하시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 — 롬 12:2, 골 3:10.
 - 2.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속부분들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주입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영원히 새롭고, 결코 낡아질 수 없으며, 영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 계 21:5상.
 - 3. 새롭게 하시는 영은 새사람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의 존재 안에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 창조물, 곧 새사람이 되게 하신다 — 딤후 3:5, 고후 5:17, 갈 6:15.

IV. 우리는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고 실지로 한 새사람이 되기 위해,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고후 4:16.

- A.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 만에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일생의 문제,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 B. 거듭난 믿는 이들인 우리는 새사람의 일부로서,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며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한다 — 롬 6:4, 7:6.
- C. 모든 믿는 이들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함으로써(롬 6:4)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김으로써(롬 7:6)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도록 새로워져야 한다.
- D.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오는 고난에 의해 우리의 겉사람이 소모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 고후 4:16.
 - 1.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 안에는 피난처인 우리의 영이 있다 — 시 91:1, 27:5, 31:20, 사 32:2, 딤후 4:22, 갈 6:17-18.
 - 2.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매일 조금씩 소모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 생명인,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신선한 공급에 의해 새로워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고후 4:16.
- E.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한다 — 마 13:43, 눅 1:78-79, 잠 4:18, 삿 5:31, 고후 4:16.

- F. 우리는 네 가지 항목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십자가(고후 4:10-12, 16-18)와 우리를 신성한 생명으로 재조정하시고 개조하시고 바꾸시는 성령(딤후 3:5)과 우리의 연합된 영(엡 4:23)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엡 5:26)이다.
- G. 우리는 새로움 안에서 주님의 상에 나아와야 한다(마 26:29). 주님은 절대로 낮은 상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V. 새사람의 새로워짐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달려 있다 — 골 3:1-2, 엡 2:5-6.

- A.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반응하고 반항하는 것이다 — 히 2:17, 4:14, 7:26, 8:1-2, 계 5:6, 골 3:1-2.
 - 1.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의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어떤 전달이 일어나고 있다 — 엡 1:19, 22-23, 2:22.
 - a. 우리의 영은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이는 한쪽 끝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그 신성한 전달을 전달하는 또 다른 한쪽 끝이다 — 계 5:6.
 - b.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늘 안으로 높아진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된다 — 계 4:1-2.
 - 2.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목양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모셔 올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 벘전 5:1-4, 비교 마 9:36, 10:1-6, 요 21:15-17, 벘전 2:25, 히 13:20.
- B.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활동으로 돌이켜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둔다면, 새사람의 새로워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 히 8:1-2, 12:2, 골 3:2.
- C. 이것은 믿는 이들을 새 창조물인 새사람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인 새사람은 우주에서 완전히 새로운 항목,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다 — 골 3:10-11, 고후 5:17, 갈 6:15-17, 엡 2:10, 15.
- D. 하나님의 목표는 한 새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 한 새사람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한 새사람의 최종적인 완결일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새사람의 생활을 함

성경: 엠 4:20-21, 마 11:28-30, 14:19, 요 5:19, 30, 7:18, 10:30

- I. 우리의 생활의 표준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살아 내신 실재이어야 한다 — 엠 4:20-21.
- A.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 오늘날 한 새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 — 마 11:28-30, 요 6:57, 4:34, 5:17, 19, 30, 6:38, 17:4.
 - B.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엠 4:21)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C.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셨다. 예수님의 생활에서는 항상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났다 — 엠 4:24.
 - 1.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실재를 따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을 따른 것이었다.
 - 2. 바로 영광스럽게 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인 이 실재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사람이 창조되었다.
 - D. 우리는 실재의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 엠 4:20-21, 롬 8:28-29, 요이 1, 요 4:23-24.
 - E. 단체적인 인격인 새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실재의 생활,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 F.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단체적인 새사람의 일상생활,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와 부합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 엠 4:23.
- II. 한 새사람의 생활은 정확히 예수님의 생활과 똑같아야 한다.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인 한 새사람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해야 한다 — 빌 1:19-21상, 3:10, 엠 4:20-21.
- A.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살면서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분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되고 연합되고 적셔졌다 — 눅 1:26-35, 7:11-17, 10:25-37, 19:1-10.
 - 1.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비록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사셨다 — 요 6:57, 5:19, 30, 6:38, 8:28, 7:16-17.
 - 2. 주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그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부터, 그분을 통해 하신 것이었다 — 요 14:10.
 - 3. 마가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사셨던 생활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것이었음을 계시한다.
 - B.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확대와 증가와 재생산과 연속으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사셨던 생활과 동일한 생활을 해야 한다 — 요일 2:6.
 - 1. 주님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우리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위한 본을 세웠는데,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생활이다 — 갈 2:20.
 - 2.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 그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분을 확대해야 한다 — 마 16:24, 빌 3:10, 1:19-21상.
 - 3. 우리는 자기 계발을 거절하고 타고난 사람을 함양하는 것을 유죄판결 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미덕들이 본질적으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과 하나님 자신과 연관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갈 5:22-23.

4.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사셨던 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그 영이시다. 우리는 이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거나 점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 고후 3:17, 13:5, 엡 3:16-19.
5. 우리는 (기도의 영과 분위기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열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 애 3:22-23, 롬 9:15과 각주 2, 출 34:6, 시 103:8, 눅 1:78-79, 10:25-37, 롬 12:1.

III. 주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어 그분에게서 배우게 하셨다 — 마 14:14-21, 11:28-30.

- A. 마태복음 14장 19절은 그분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셨고, 그것들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셨다고 말한다.
 1.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근원이신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것을 가리킨다.
 - a.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셨음을 가리킨다.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께서 마땅히 축복의 근원이셔야 한다 — 비교 롬 11:36.
 - b.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리 잘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보내신 분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공급의 통로가 될 수 있다 — 비교 마 14:19하, 민 6:22-27.
 2.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 이 땅에 계신 아들로써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아버지를 신뢰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요 10:30.
 - a.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 — 비교 고전 2:3-4.
 - b. 축복은 다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의해서만 온다 — 비교 고후 1:8-9.
 3.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 요 5:19, 비교 마 16:24.
 - a.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해야 한다.
 - b.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자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 — 빌 1:19-21상.
 4. 주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셨다 — 요 5:30하, 6:38, 마 26:39, 42.
 - a. 주님은 그분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거절하셨다.
 - b. 우리 모두는 다음 한 가지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생각과 목적과 취지와 목표와 의도를 구하며 가야 한다 — 비교 딤후 5:2하.
 5. 주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 — 요 7:18, 5:41, 비교 12:43.
 - a. 야심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 비교 요삼 9.
 - b. 우리는 자신의 자아와 목적과 야심이 우리의 일에서 세 마리의 파괴하는 큰 ‘벌레’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미워하기를 배워야 한다.
- B.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항상 쓰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 새사람을 위해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목적을 거절하며, 우리의 야심을 포기해야 한다 — 마 16:24.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
실지로 한 새사람을 갖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어 드리는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

성경: 율 1:4, 3:11, 엡 1:3-6, 2:15, 4:22-24, 미 5:2, 계 19:7-9

I. 이 우주 안에는 두 가지 역사(歷史), 곧 사람의 역사인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가 있다. 전자는 밖의 껍질과 같고, 후자는 껍질 속의 핵과 같다 — 비교 율 1:4.

A.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1. 우리는 영원 과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사람과의 연결 안에 있기 위한 준비였다.

a. 신성한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넣는 일을 하심으로써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며, 사람을 그분의 표현으로 연기를 원하신다 — 엡 3:9-10, 1:10, 창 1:26, 2:9.

b.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회의를 여시어, 그리스도의 중대한 죽음에 대해 결정을 내리셨다 — 행 2:23.

c.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 위격은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의 그분의 '계속적인 나아오심'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 미 5:2.

d.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로 믿는 이들을 축복하셨다 — 엡 1:3-6.

2.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육체 되심으로 시작해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분의 과정으로 계속되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은 이러한 과정들을 사람의 줄들, 사랑의 끈들이라고 말한다.

a. 신성한 역사인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사람이신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하여 새사람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궁극적인 성취인 위대한 하나님-사람,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b.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시키시고 연합시키셨으며, 그분의 인성 안에서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다.

c.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대속하는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법리적인 구속으로서, 옛 창조물을 종결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였다(요 1:29).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로 타락한 모든 것들을 구속하셨고(히 2:9, 골 1:20),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새사람을 창조(잉태)하셨으며(엡 2:15),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질 안에서부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다(요 12:24, 19:34, 눅 12:49-50).

d.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행 13:33, 롬 1:4, 8:29),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으며(고전 15:45하),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자 한 새사람인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벧전 1:3, 골 3:10-11).

e. 그리스도는 하늘들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으로 강림하셔서,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한 새사람인 교회를 산출하셨다 — 율 2:28-32, 행 2:1-4, 16-21.

- B. 이와 같이, 한 새사람의 실재인 교회 또한 신성한 역사, 곧 외적인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비밀의 내재적인 역사의 일부이다. 신성한 역사의 이 부분의 끝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돌아오셔서(골 1:4, 3:11)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실 것이다.
- C.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결국 이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결 단계일 것이다.

II. 베드로(고기 잡는 사역)와 바울(건축하는 사역)과 요한(보수하는 사역)에게서, 우리는 한 새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볼 수 있다.

- A. 하나님은 오순절 날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많은 유대인 믿는 이들을 이끌어 오셨다(행 2:5-11). 더 나아가 고넬료는 기도 중에 이상을 받았고(10:30) 베드로 또한 기도 중에 이상을 받았는데(17, 19절), 이것을 통해 한 새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이방인들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움직임(9하-14, 27-29절)이 수행되었다.
- B.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을 창조하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둘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음을 밝혀 준다(비교 4:22-24).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다’고 말하며,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새사람 안에서 전혀 입지가 없다고 말한다.
- C.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셨다’고 말한다(계 5:9). 구속받은 이 사람들은 한 새사람인 교회를 구성한다. 요한을 통해 우리는 또한 교회들이 금등잔대들이며(계 1:11-12), 최종적으로 이 등잔대들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본다. 등잔대들과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민족들 간의 어떤 차이도 볼 수 없다.
- D.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영을 마심으로써(고전 12:13)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럴 때 우리는 실지로 한 새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엡 4:22-24).

III. 신성한 역사에는 새 창조물, 곧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생명과 새 본성과 새 역사와 새 완결을 가진 새사람이 있다 — 영한 동번 찬송가 16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1장), 겔 36:26, 고후 3:16, 마 5:8, 딤후 3:5.

- A. 사람 안에서의 신성한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에서 시작하여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을 거쳐,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내주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곧 거듭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변화시키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심과 영광스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한 새사람의 완전한 실재 안으로 이끄시고 그분의 신부로 만드신다 — 엡 4:22-24, 롬 5:10, 계 19:7-9.
- B.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인간 역사 안에 살고 있는가?’
 1. 우리는 모두 인간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 우리의 생활이 세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새사람의 실재인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다. 이제 이 둘, 곧 하나님과 우리는 한 역사, 신성한 역사를 갖고 있다.
 2.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 있으면서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분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엡 2:14-17, 6:15, 비교 마 24:14), 이럴 때 우리는 실지로 한 새사람이 되어 그분의 이기는 신부가 될 수 있다.